

태국

조미 김

■ HS코드 및 관세율 (2011. 1.1-12.31 기준)

HS 코드	일반관세율	설 명	비 고
1212209001	1%	식품가공업체용으로 수입된 해초류	
21069040	30%	조제한 식용해초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한국 5%
20089990	60%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20089930	30% (kg/25Baht)	최근 태국관세청이 한국산 조미김에 간혹 적용하는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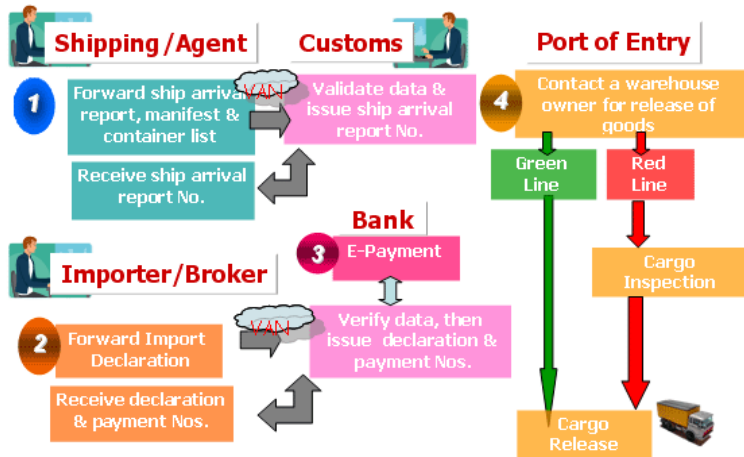
■ 태국 김 수입 관세 적용

- 태국관세청은 한국산 조미김 수입시 2008.9 계열의 HS Code를 적용해오고 있었음. 해당코드는 Takaenoi 등 태국 현지의 김 스낵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로 태국 관세청에서 일종의 관세장벽으로 한국산 수입 조미김에 적용을 한 바 있음
- ASEAN FTA 협정 이후 한-태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다시 210690 코드로 바꾸어 적용을 하고 있음
- 조미김의 한국산 관세가 5%로 비교적 소폭이긴 하지만 기타 ASEAN 회원국 및 일본, 중국 등의 경쟁 국가들은 모두 0%의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이 같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예외규정은 품목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도 적용되고 있음. 한국산 농수산물 및 의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ASEAN FTA 면세(단, 한국은 제외)’ 품목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asean-korea-back eng.pdf)
- 2009-2010년에 사이에 세율이 높은 세관코드 적용(2008.99.30외)으로 현지 수입 업체는 늘어난 관세로 인해 가격부담과 함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연장 및 까다로워진 검사 기준으로 인하여 제품의 상온 장기노출에 따른 상품성 손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음. 조사시점인 2011년 6-7월상황은 프로타이(Pro Thai)와

프래리 마케팅(Prairie Marketing)사 모두 정상적인 조미김의 수입관세인 5%를 적용받고 있었음

- 식품가공용으로 수입된 원초의 경우, 관세율은 한국산1%, 중국산 및 일본산은 0%임. 한국에서 수입되는 조미김의 관세가 5%이고 중량 대비 동종 및 유사제품의 산지별 가격을 보더라도 일본산, 태국산, 중국산 다음으로 제일 낮은 시장가를 형성하고 있어 과거 태국의 김 스낵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30% 세율의 코드를 적용했었던 것으로 파악됨
- FTA 등 관세 철폐 및 완화 등의 분위기로 이러한 코드 변경 관행은 현재 조미김 수입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임. 단, 새로운 업체가 조미김의 수입 및 통관을 계획 중이라면 관세율 적용코드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 조미김의 태국 내 수입절차



- 한국산 농수산물이나 식료품이 태국에서 정식 유통되기 위해서는 식품수입 허가증이 개별 품목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등 선결 조건이 있음
- 식품수입을 위한 수입허가증의 신청과 발급은 태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만이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업체는 태국 내에 수입업체 파트너 또는 현지 지사가 있어야 태국 내 수입 및 통관이 가능

■ 식품 수입허가 및 판매허가 (태국 식약청 FTDA 발행)

- 특정원료, 석유, 섬유, 농산품 등 총 42개 항목에 대해서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제품 중 식품이 23개로서 비중이 높으나 WTO 규정에 의하여 관세 및 쿼터로 전환하고 있음
- 식품 및 의약품 수입은 태국식품 및 의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TFDA 공식 사이트에서는 2개월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6~8개월 심지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빈번함)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를 요구하기도 함. 그러나 기존의 식품 수입업체가 새로운 품목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을 때에는 1-2주 정도의 단시간 안에 식품의 수입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품목, 경험, 담당자, 안전성에 대한 이슈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짐
- 현재 한국산 조미김의 경우 수입 된지 수년이 되었고 제조 가공품이며 태국산 경쟁 품목과의 제품특성의 차이가 있어 기타 품목의 수입보다는 수입절차가 보다 수월해짐

■ 주의사항 및 수입절차

- 식품 수입 허가에는 약 300달러 정도의 비용의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식품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분 내역을 제출하고 과정도 설명하여야 함
- 태국에서는 그 어떤 유통 업체도 FTDA의 허가(식품수입허가)가 없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고 이 허가증은 태국 내에 등록된 회사만이 신청할 수도 또 발급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태국에 지사가 있거나 현지 바이어 (수입 유통회사)가 있어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함
- 전반적으로 복잡한 수입 절차 때문에 대다수의 수출 기업은 사전에 태국 내 수입 업체에게 수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아주 일부 업체 (Central Food, Villa Supermarket)만이 그것도 아주 제한된 물량만을 직접 수입하기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지의 우수한 수입유통 회사를 바이어 또는

파트너로 지정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바이어로 하여금 태국 내 각종 수입절차 및 판매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음. 수입 이후 일반 유통을 원한다면 현지의 유향 수입 또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

■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 기본서류 : 성분표, 분석표, ISO/HACCP 원본 (모두 영문서류)
- 특별관리 품목인 경우 기본서류와 함께 샘플을 받아 태국 분석국에 분석의뢰 후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내진 성분표와 비교하여 수입절차가 이루어짐 (일부 Fresh 제품 등)
- 기타서류 : 원산지 증명서, 검역증 (위생증)
-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품목이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많지 않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소비자 보호라는 일반적 취지 외에 태국 상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CE, UL 및 ISO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크를 획득하였을 경우 부차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식품의 수출시 ISO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바이어들의 주장
- 관련제도의 담당기관은 태국 상무부 산하 산업표준원(TISI)이며, 조사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종료됨. 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300 달러 안에서 가능함

■ 상품 라벨링 조건

- 상표에는 제품이름, 설명, 순 중량 또는 수량과 제조일 및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함. 또한 제조업체 및 배급업체 명과 주소, 제품 또는 상표 등록 번호도 명기해야하며 알코올성 음료를 제외한 모든 상표는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함

■ 상품 등록

- 조미김과 같은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 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해 제출해야함

■ 태국의 조미김 수입통계

- 태국의 조미김 최근 3년간 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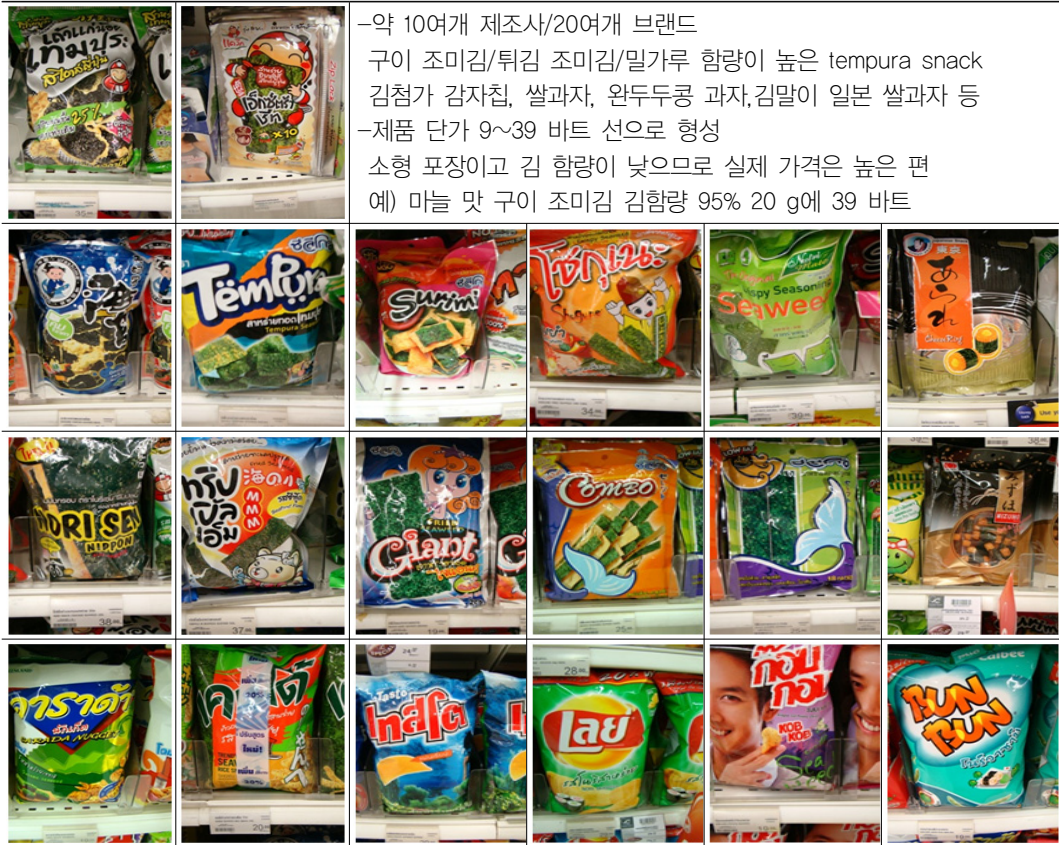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22,238	18,405	21,140
1	대 한 민 국	11,784	9,600	9,933
2	중 국	8,444	7,375	9,397
3	일 본	1,010	639	732
4	인도네시아	425	240	316
5	벨 기 에	0	1	172
6	스 웨 덴	0	55	165
7	칠 레	66	117	118
8	미 국	37	61	66
9	인 도	62	37	57
10	북 한	0	0	51

자료: GTIS

* 전체 태국의 수산물 수입은 2010년 기준 2,489백만 달러이었으며 이중 조미김은 21백만 달러로 1% 정도이며 한국 조미김의 수입물량은 약10백만 달러로 조미김 전체 수입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태국산 김 스낵종류와 포장 (사진)



-약 10여개 제조사/20여개 브랜드
 구이 조미김/튀김 조미김/밀가루 함량이 높은 tempura snack
 김첨가 감자칩, 쌀과자, 완두콩 과자, 김말이 일본 쌀과자 등
 -제품 단가 9~39 바트 선으로 형성
 소형 포장이고 김 함량이 낮으므로 실제 가격은 높은 편
 예) 마늘 맛 구이 조미김 김함량 95% 20 g에 39 바트

수입산 김 제품 종류와 포장 (사진)

<p>한국산</p>			<p>-최저 시장가 형성 맛과 인기면에서는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입조미김. 전장 조미 구이김 -30g - 45~55바트 현지 딜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이로 인해 자주 시장에서 행사 상품으로 등장,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p>
<p>일본산</p>			<p>-최고시장가 형성 -일본인이 주고객 -조미김 40g - 169g</p>
<p>중국산 (대만산포함)</p>			<p>-판매는 되나 인기는 없다고 함 -조미김 대만산 -30g ~ 60g</p>

■ 한국산 김 수입 업체 인터뷰

- 수입업체: S산업
- 회사소개
 - 다양한 종류의 스낵 (비스킷, seafood과자, 김스낵 등)과 주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브랜드의 김스낵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태국 김스낵 업계의 2-3위 업체. Tesco Lotus, Makro, Seven Eleven 등에 자사브랜드제품 입점 판매 중이며 Big C (현재 Carrefour가 인수하여 더욱 대형화)에는 Big C 하우스 브랜드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수입 규모 : 연간 40 Ft 컨테이너로 약 24 대 분량의 김 원초 수입 중
 - 한국산 김 수입 비중 : 한국산 30% / 중국산 70%
- 한국산에 대한 인식
 - 품질이 중국산에 비해 월등히 좋음. 원초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제품 이라도 제조과정을 거쳐 구워 놓으면 완전히 다른 맛과 식감, 색깔 그리고 크기까지 차이를 보임
 - 한국산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한국산 김을 사용한 제품엔 제품 전면에 태극 마크 및 원산지 표기와 한글 문구 등을 표기하고있음
 - 대장금 ‘상궁’ 캐릭터와 Korean Grilled Seaweed라는 표기가 있음. ‘구운 새우’, ‘구운 게’, ‘한국식으로 구운’ 등 한식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임
- 일본산은 품질대비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능 문제로 지금 현재까지 수입할 계획이 없음

■ 김 스낵시장 전망

- 김 스낵시장은 매우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태국의 스낵시장 자체도 긍정 적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관망됨
- 태국의 김 스낵시장은 연간 12억 바트(김 첨가, 감자칩 등 제외)로 추산되며 한국산 조미김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태국에는 현재 1위인 Taokenoi, 일본 브랜드 현지 생산품인 Seleco를 비롯하여 김 스낵을 제조하는 회사가 약 10여 개 업체로, 20여종의 다양한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음